



가수 손담비(오른쪽)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감독과 5월 13일 결혼한다. 손담비는 최근 SNS를 통해 이규혁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연달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캡처 | 손담비 SNS

손담비♥이규혁 “5월에 결혼해요”

공개 연애 한 달만에 초고속 발표
손담비 “인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초고속 결혼!’ 가수 겸 배우 손담비(39)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44) 감독이 결혼한다.

지난해 12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이 한 달 만에 팬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인이 된 후 자신들의 SNS를 통해 커플링, 키스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진한 애정을 과시했던 만큼 결혼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들의 소속사 에이치엔드엔터테인먼트와 IHQ는 25일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5월 13일 서울 모처에서 백년가약을 맺기로 했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 가족과 가까운 친척, 지인 등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공개 연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팬들은 호기심을 드러냈지만, 소속사 측은 “혼전임신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 어린 나이고 아니고,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건 공개 연애를 알린 시점보다 이른 지난해 9월부터다. 당시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이 골프 등을 함께 즐기다 서로에 호감을 느꼈고, 이규혁이 손담비의 생일인 9월25일 프러포즈를 하며 공식 연인이 됐다.

이후부터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손담비가 최근 커플링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해 두 사람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결혼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해왔고 팬들에게 직접 알린 후 마음 편하게 혼수나 신혼살림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손담비는 이날 SNS에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는 누구의 말이 아닌, 제가 직접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쓴다”며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함께 있으면 가장 나은 모습이 되고,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행복이라는 걸 일깨워 주신 사람”이라면서 “결혼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손담비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혁도 소속사를 통해 “현명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가수로 데뷔한 손담비는 2009년 드라마 ‘드림’을 시작으로 ‘빛과 그림자’, ‘유미의 방’,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규혁은 1991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에 여섯 차례 출전했다. 1990년대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현재는 IHQ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을 맡아 2022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이승훈을 지도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드라마 ‘그 해 우리는’ 마친 워너비 남친 최우식



아직 로코베이비 로코킹 될때까지 로맨스 장르 도전



배우 최우식은 25일 종영한 SBS 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 대해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다”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첫사랑과 이별을 잘 담아내 재미있게 연기했다”고 돌아섰다.

배우 최우식(32)은 요즘 못 여성들의 ‘워너비 남친’으로 꼽힌다. 25일 종영한 SBS 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서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친구를 연기하면서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온라인에는 그의 편안한 매력이 돋보이는 예능프로그램 속 장면이나 SNS로 공개한 일상 사진이 ‘남친짤’(남자친구 사진)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날 화상으로 만난 최우식은 정작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는)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속스러워했다. “동네 어딘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외모 때문 아닐까?”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래도 ‘사랑스럽다’는 반응이 싫지 않은 기색이다. “좋게 봐주세요 다행이라고 매년 생각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로코베이비’까지는 갔다”

극중 건물 일러스트레이터 최우 역할을 맡아 푹 부러진 성격의 김다미와 첫사랑의 풋풋함, 이별의 애절함을 나눴다. 극본을 쓴 이나나 작가가 2020년 방송한 tvN 예능프로그램 ‘여름방학’ 속 최우식 모습을 참고해 “최우를 만들어 연기하기 편했다”고 돌아섰다.

“평소에 사랑과 건강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실제에서

항상 죽이고 죽는 연기만 하다가 기본 좋은 로코 연기 만족스러워 욕 먹어도 칭찬 받아도 연기고민 절친 모임 ‘우가팸’ 응원이 큰 힘이 돼주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로코킹’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소속사인 공유 형이 ‘로코킹’까지는 아니고, ‘로코 베이비’ 정도는 됐다고 말했답니다. 하하하! 그동안 누구를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죽거나, 혹은 도망 다니거나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연기를 주로 해왔어요. 그러다 이렇게 부드럽고 기분 좋은 연기를 하니 스스로도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로맨스를 그린 작품을

더 해보고 싶어요.”

●“이미지 변신? 세월이 해결”
과거에는 귀여운 이미지를 벗고 싶어 “상의를 탈의하고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는 캐릭터”를 찾아 헤맨 적도 있었다. 지금은 “이미지 변신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고의 장점을 아직 뽐내보지도 못했는데 생각이 참 짧았죠. 요즘에는 저의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만들고 싶단 욕심도 듭니다. 2019년 ‘기생충’에 이어 ‘그 해 우리는’을 대표작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는 조금씩 부담을 느껴요. 못한다고 욕먹어도, 잘한다고 칭찬받아도 고민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잘 극복해야죠.”

절친한 친구인 방탄소년단 멤버 뷁(김태형)은 OST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르며 최우식을 지원 사격했다. 박서준, 뷁, 박형식 등 절친한 친구들이 모인 ‘우가팸’은 서로의 팬팅에 깜짝 초대 손님으로 나설 만큼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서로의 작품에 특별출연을 해주거나 OST를 불러주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 작품에 친구들이 힘을 보태줘서 기분이 좋아요. 정말 고맙죠.”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동수사대 팀장’ 김소진-‘조세5국 1팀’ 고아성…결크리시 존재감

‘악의 마음을’ 김소진 강렬한 임팩트
‘트레이서’ 고아성 비리 사건 파헤쳐

배우 김소진과 고아성이 주말 안방극장에서 ‘결크리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들은 각각 SBS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과 MBC 금토드라마 ‘트레이서’의 주연 가운데 흥일점으로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김소진은 극중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이 야기를 담은 드라마에서 기동수사대 팀장 윤태구 역을 맡았다. 살인마를 잡기 위해 프로파일러 김남길, 진선규와 공조한다.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장화를 신고 강물에 들어가는 열정적인 캐릭터다. 김남길, 진선규 등 베테랑들과 호흡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악의 마음을’ 김소진 ‘트레이서’ 고아성

시청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얼굴이지만 스크린에서 주로 활약해오며 입지를 다졌다. 영화 ‘모가디슈’ ‘남산의 부장들’ 등을 주연한 내공을 안방극장에서도 펼칠 태세다. 김남길과 진선규는 그를 “드라마가 낳을 ‘스타’”로 일찌감치 점찍었다. 21일 방송에 처음 등장한 이후 실시간 댓글창에는

“신선하고 강렬하다”며 김소진을 향한 관심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고아성은 ‘트레이서’에서 국제청의 굵은 일을 도맡는 조세5국 1팀 직원으로 나서고 있다. 안하무인 탐장 임사원을 도와 각종 비리 사건들을 파헤치는 캐릭터다. 다혈질인 임사원이 벌인 일들을 자습하느라 진땀 흘리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전의령, 문원주 등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가득한 조세5국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임사원과 티격태격하는 콤피연기가 특히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시리즈에 연이여 도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 ‘트레이서’는 지난해 10월 KT 시즌5극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임사원과 티격태격하는 콤피연기가 특히 호평을 얻고 있다.



연예뉴스 HOT 5

‘BTS 뮤비’·‘오겜’, 美 미술감독조합상 후보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미술감독조합(ADG)상 후보에 올랐다. 25일(한국시간) ADG에 따르면 3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제26회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 뮤직비디오는 ‘쇼트 팟: 웹 시리즈/뮤비’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오징어게임’은 6회 ‘간부’ 편에서 선보인 각종 세트 시 설로 ‘1시간 현대극 싱글 카메라 시리즈’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국 미술감독조합상은 영화와 TV드라마 등에서 우수한 배경 디자인을 연출한 미술감독과 세트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미술상이다. 앞서 영화 ‘기생충’의 이 하준 미술 감독은 2020년 제24회 시상식에서 현대극 부문 미술상을 받았다.

연기대상 2관왕 나인우, ‘1박2일’ 고정 합류



나인우

배우 나인우가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합류한다. 제작진은 25일 “나인우가 고정 출연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앞서 사생활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김선호의 빈자리를 채운다. 연출을 맡은 방글이 PD는 “나인우의 합류로 프로그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려고 한다”면서 “예능 초보 캐릭터가 주는 신선함과 20대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막내의 합류로 기존 멤버들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나인우는 지난해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출연 이후 KBS 연기대상 2관왕을 수상했다.

‘술도너’ 3인방, 등산 예능으로 다시 뭉친다



이선빈·정은지·한선화

배우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술이 아닌 등산으로 뭉친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 도시여자들’에서 호흡을 맞춘 세 사람은 2월 11일 오후 8시 50분에 첫 방송하는 tvN 새 예능프로그램 ‘산꾼도시여자들’에 출연한다. ‘산꾼도시여자들’은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태백산, 한라산 등 국내의 여러 산을 오르는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래전부터 등산을 즐겨왔다는 한선화, 등산 초보인 이선빈과 정은지는 함께 등산하고 밤을 보내며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촬영 중이다.

최시원, 유니세프 ‘넥스트 제너레이션’ 선정



최시원

그림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유니세프 차세대 글로벌 리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선정됐다.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인 최시원은 기후 위기, 디지털 불평등, 마음 건강 등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한다. 그는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이름을 올린 뉴진을 끈다. 최시원은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더욱 무겁다”며 “작은 역량이라도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유니세프와 어린이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빅마마, 내달 10일 12년 만의 정규앨범 발표

4인조 여성 보컬 그룹 빅마마가 12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5일 “빅마마가 2월 10일 정규앨범 ‘Born(본)’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빅마마가 2010년 발매한 다섯 번째 정규앨범 ‘5’ 이후 약 12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앨범이다. 지난해 6월 싱글 ‘하루만 더’를 발표하고 9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이들은 8개월 만에 신보로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 ‘태어나다’의 ‘Born’과 ‘근본(本)’을 담은 앨범명에 맞게 빅마마는 그룹만이 가진 원초의 색깔과 호흡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